

한국판 기질적 용서척도(K-HFS) 타당화 연구

홍현기^{1‡} 이정은¹ 김진경² 강규현² 이수미² 현명호^{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과¹ 중앙대학교 심리학과²

본 연구는 기질적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 Thompson 등(2005)이 개발한 The Heartland Forgiveness Scale(HFS)을 타당화하여 한국판 기질적 용서척도(K-HFS)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서울 거주 대학생 326명에게 기질적 용서척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지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판 기질적 용서척도의 내적 일치도가 높았고(Cronbach $\alpha=.80$),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Thompson 등(2005)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자기용서, 상황용서, 타인용서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또한 용서특질척도, 한국판 자기용서상태척도,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인지적 유연성 척도, 특성분노척도, 우울척도와 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준거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용서, 기질적 용서, Heartland Forgiveness Scale(HFS)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어서 대인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경우 분노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이연수, 송민경, 김청송, 2011). 이러한 심리적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1980년대부터 심리학 분야에 용서의 개념이 대두하였다(조수아, 권석만, 임영진, 2011; 김지영, 권석만, 2009).

심리학자마다 용서의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내리고 있지만 핵심적인 개념은 유사하다. Hebl과 Enright(1993)은 용서를 부당하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판단을 버리고 연민, 관대함, 사랑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Enright(2001, 2004)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이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고 동정과 자비를 베풀고자 시도하는 복합적인 심리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용서란 심리적, 신체적, 물질적 해를 입었을 때, 가해 대상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의식적으로 중립 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용서는 기질적 용서와 상황 특수적 용서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질적 용서란 시간 및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나타나는 일관적인 용서 성향이다(김지영, 권석만, 2009). 반대로 상황 특수적 용서란 특정 상황 혹은 특정 대상을 용서하기 위한 동기의 변화나 인지, 정서, 행동상의 변화를 말한다. 용서연구의 초반에는 상황 특수적 용서에 초점을 두었으나 기질적 특성으로서의 용서 역시 최근 10

여 년간 연구되어 왔다. 기질적 용서는 상황적 용서보다 개인에게 긍정적, 잠재적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심리학에서도 용서를 성격적 강점이자 덕성으로 보았다(Peterson & Seligman, 2004). Peterson과 Seligman(2004)이 구성한 6개의 핵심 덕목과 24개의 하위강점 중 용서는 절제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와 보복욕구를 내려놓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강점을 말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성격요소이자 기질이므로 상태적 용서가 아닌 기질적 용서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기질적 용서는 크게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로 구분된다. 자기용서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패를 한 자신을 용서하는 경향으로(Tangney, Fee, Reinsmith, Boone, & Lee, 1999),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기꺼이 버리고 자신에 대한 동정, 연민, 관대함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박종호, 2012; Enright, 1996; Hall & Fincham, 2005, 2008). 적절한 자기용서가 일어날 경우, 개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감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싫었던 스스로의 모습과 화해하게 되면서 본인에게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 생각, 처벌하려는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Enright, 1996).

타인용서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분노, 적대감을 품는 대신 상처를 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 정서,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박종호, 2012; Enright, 2001). 개인은 가해자와 진처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각하지 않는데, 이것은 일어났던 사건자체를 잊는다고 보다는 가해자와의 부정적인 연결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 여기기 때문이다(Thompson & Snyder, 2003). 용서하는 사람은 심리적인 자유로움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가해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Thompson & Snyder, 2003).

마지막으로 상황용서는 자연재해, 신체질환, 운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질환처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용서를 의미한다(Thompson et al., 2005). 상황용서는 자기용서처럼 심리적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einze & Snyder, 2001).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당시의 사고, 기억, 정서, 행동과 밀접한 연결감을 가지나, 상황용서가 진행될수록 부정적인 정서가가 중립 또는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고 연결자체가 느슨해질 수 있다(Thompson & Snyder, 2003).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에서 상태, 기질적 타인용서의 개념으로 접근한 평가도구는 여럿 있다. 현재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는 Enright 용서척도, 용서특질척도, 한국인 용서척도, 한국판 특성용서척도가 있다. Enright 용서척도는 Subkoviak 등(1995)이 개발하였고 박종효(2006)가 번안하였다.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상처를 받은 경우, 가해자를 어느 정도 용서하고 있는지 정서, 인지, 행동 영역에서 60문항을 통해 묻는다. 문항 내적 일치도가 .98-.99로 지나치게 높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는다는 비판이 있다(오영희, 2010).

용서특질척도(Forgiveness Trait Scale, 김지영, 권석만, 2009)는 10문항을 통해 나에게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타인에 대한 관대함을 측정한다. 한국인 용서척도(오영희, 2008) 역시 유사하게 타인용서에 초점을 두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용서반응을 정서, 인지, 행동 측면에서 24문항을 통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특성용서척도(Trait Forgivingness Scale-Korea, 정명선, 2013)는 Berry, Worthington, O'Connor, Parrott와 Wade(2005)가 개발한 특질용서척도를 타당화한 것이다. Berry 등(2005)은 타인용서에 초점을 두고 9문항을 통해 용서함(forgiveness), 억울함(resentment)영역으로 평가한다.

위에 제시한 척도들은 타인용서에 초점을 둔 상태용서, 기질적 용서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심리적인 갈등이 늘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만을 아님을 고려할 때, 자기용서, 상황용서에 대한 개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자신이 초래한 실수, 실패에 대해 죄책감, 수치심을 느낄 경우 스스로의 선택과 결과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한편 스스로에게 자비(self-compassion)를 베푸는 자기용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상황용서의 개념 역시 일반인이 일상에서 종종 경험하지만 명확한 이유나 책임소재를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신체질환처럼 개인의 통제수준을 넘어선 어려움의 경우 상황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다.

Heartland Forgiveness Scale(HFS, Thompson et al., 2005)는 자기보고척도로 자기, 타인, 상황에 대한 용서를 측정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척도는 주로 타인용서 개념만을 독립적으로 다루었으나 HFS는 자기용서, 상황용서를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용서척도를 확장시켰다. HFS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1점=거의 그렇지 않다, 7점=거의 그렇다)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세 요인을 각 여섯 문항으로 평가한다. 자기용서 문항으로는 “일을 망치면 나 자신

을 용납하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나 자신을 원망 한다”, 타인용서 문항으로는 “만약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들을 계속 나쁘게 생각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실수했던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상황용서 문항으로는 “살아가면서 나쁜 상황이 생기더라도 결국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삶에서 나쁜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가 포함된다.

HFS 타당화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83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융통성, 긍정정서, 주의분산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반추, 복수, 적대감과 부적상관이 유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분노, 불안, 우울, 삶의 만족도와 같이 심리적 웰빙을 예측하는 척도와 상관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인 정서와는 부적상관이,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상관이 나타나 수렴, 변별 타당도가 입증되었다(Thompson et al., 2005). 다른 기질용서척도 Forgiveness of Self & Forgiveness of Others (Mauger, Saxon, Hamill, & Pannell, 1996), Multidimensional Forgiveness Inventory(Tangney et al., 1999), Willingness to Forgive Scale(Hebl & Enright, 1993)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나, 비(非)기질척도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Subkoviak et al., 1995),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McCullough et al., 1998),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solution Scale(Hargrave & Sells, 1997)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준거관련타당도가 입증되었다(Thompson et al., 2005). 따라서 HFS는 기질적 용서를 측정하는데 있어 자기용서, 상황용서, 타인용서라는 개념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타당도가

입증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HF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요인 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HFS가 기질적 용서의 구성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용서특질척도, 한국판 자기용서상태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한국인 용서척도 단축형, 특성분노 척도, 한국판 CES-D, 인지적 유연성 검사와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척도선택은 원저자의 타당화 연구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다. 용서특질 척도와는 HFS의 타인용서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며, 한국판 자기용서척도는 자기용서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 용서척도 단축형은 상태용서를 측정하므로 HFS의 총점과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적 상관값을 보일 것이며 사회적 바람직성의 경우 용서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정적 상관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지적 유연성은 HFS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특성분노, 한국판 CES-D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얻었다.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후, 연구에 동의한 총 353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자 및 결측치가 있는 27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326명(남 148, 여 178)의

자료를 분석하였다(평균 연령: 21.77세, SD=2.59).

측정도구

한국판 기질적 용서척도(Korean Heartland Forgiveness Scale: K-HFS; Thompson et al., 2005). 일반적인 용서성향에 대한 척도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적인 일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을 자기, 타인, 상황에 대한 용서로 구분지어 측정한다.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4로 나타났다.

용서특질척도(Forgiveness Trait Scale: FTS; 김지영, 권석만, 2009). 자신에게 피해를 준 이에 대한 분노와 보복욕구를 따르는 대신 상대에게 자비롭고 관대하게 대하는 덕성으로써의 용서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개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성품에 해당되는 용서의 개념을 측정하며,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고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2로 나타났다.

한국판 자기용서상태척도(The State Self-forgiveness Scale-Korea: SSFS-K). Wohl, DeShea와 Wahkinney(2008)가 개발하고 배소현(2010)이 한국 상황에 적합하게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이다.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로 인한 괴로움이나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 경험을 측정한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8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K-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7: K-BIDR). 최보라(2007)가 개발한 자기 보고식 검사로 자신이나 주위 사람에게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자기기만적 고양요인, 인상관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상 관리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고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3로 나타났다.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Korean Forgiveness Scale-Short Form). 오영희(2011)가 개발한 척도로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후 생기는 부정적인 반응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상대용서를 측정한다.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65로 나타났다.

특성분노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Spielberger, Jacobs, Russell과 Crane(1983)이 개발하였고 전점구, 한덕웅과 이장호(1998)가 번안하였다. 개인의 분노 경향성을 측정하며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3로 나타났다.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가 개발하였고 전점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하였다. 일반인이 경험할 수 있는 우울을 쉽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

울 증상을 4점 척도상에서 20문항을 통해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9로 나타났다.

인지적 유연성 검사(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Dennis, Vandar와 Wal(2010)이 개발하였고 허심양(2011)이 번안하였다. 대안, 통제 2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20문항이다. 5점척도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원 척도의 저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타당화 연구 진행 허가를 받았다. 기질적 용서 척도를 번안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번역한 후 수정 합의를 통해 초벌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이후 심리학을 전공한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자가 한국어 번역본을 영어로 역번역하였고, 원척도의 저자가 척도의 문항이 원래의 표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승인한 후 본 척도를 완성하였다. 이후 최종 선정된 문항과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7개의 척도를 포함하여 질 문지를 완성하였다.

자료분석

SPSS 18.0, AMOS 7.0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 일치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모델 적합도 비교 검증,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를 구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및 모형 적합도 비교 검증을 위해 AMOS를 통해 표준화된 χ^2 , 일반

합치도 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 조정합치도 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비교적합도 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y-Lewis Index), 근사접합도 지수(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χ^2 은 3이하, GFI, AGFI, CFI, TL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괜찮다고 판단하며, RMSEA의 경우 .08미만이면 적합도가 적절하고, .10미만이면 보통이라고 간주한다(홍세희, 2000). 아울러 준거관련 타당도,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분석은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결 과

한국판 기질적 용서 척도(K-HFS)의 신뢰도 및 요인 간 상관분석

1차 문항 선별을 위해 총 18문항을 대상으로 내적 일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내적일치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문항이 없어서 원래의 18문항을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18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0로 보통 수준이었다. Hotelling's T 값은 989.18로 문항이 골고루 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F(17,336)=989.18, p<.001$.

표 1은 K-HFS의 3요인 간 상관과 Thompson 등(2005)의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 간 상관값이다. 분석 결과 원 척도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의 요인 간 상관값이 나타났다.

표 1. 한국판 기질적 용서 척도(K-HFS) 하위 요인 간 상관

요인	자기용서	타인용서
타인용서	.31*** (.31~.35)	
상황용서	.66*** (.55~.60)	.44*** (.45~.51)

*** $p < .001$.

주. ()는 Thompson 등(2005) Study 2,3,4의 결과.

표 2. 한국판 기질적 용서 척도(HFS)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χ^2/df	GFI	AGFI	CFI	TLI	RMSEA (LO90~HI90)
3 요인 모델	1.95	.92	.90	.91	.90	.05 (.04~.06)

한국판 기질적 용서 척도(K-HFS)의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한국판 기질적 용서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Thompson 등(2005)의 연구에서 제시했던 요인 구조가 본 연구에서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공분산 행렬자료를 사용하여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ML)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Thompson 등(2005)의 연구에서 제시했던 3요인 모델의 경우, 모든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원저자의 3요인 모델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 = 1.95$, GFI(.92), AGFI(.90), CFI(.91), TLI(.90), RMSEA(.05).

준거 변인과의 상관 분석 결과

한국판 기질적 용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판 기질적 용서 척도(K-HFS), 용서 특질척도(FTS), 한국판 자기용서척도(SSFS-K),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K-BIDR), 특성분노척도(STAXI-K), 한국판 CSE-D,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KFS-SF), 인지적 유연성(CFI)과의 상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용서특질 척도(FTS)와 한국판 자기용서척도(SSFS-K)를 통하여 K-HFS의 자기 및 타인용서 척도의 준거 관련타당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한국인 용서척도(상대용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통하여 K-HFS의 변별타당도를, 인지적 유연성(CFI), 특성분노척도, 한국판 CES-D를 통해 K-HFS와 수렴타당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기질적인 타인 용서를 측정하는 용서특질 척도는, K-HFS의 자기용서와는 .33, 타인용서와는 .63, 상황용서와는 .4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상관값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K-HFS의 타인용서가 자기 및 상황용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K-HFS의 타인용서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판 자기용서척도(SSFS-K)의 경우, K-HFS의 자기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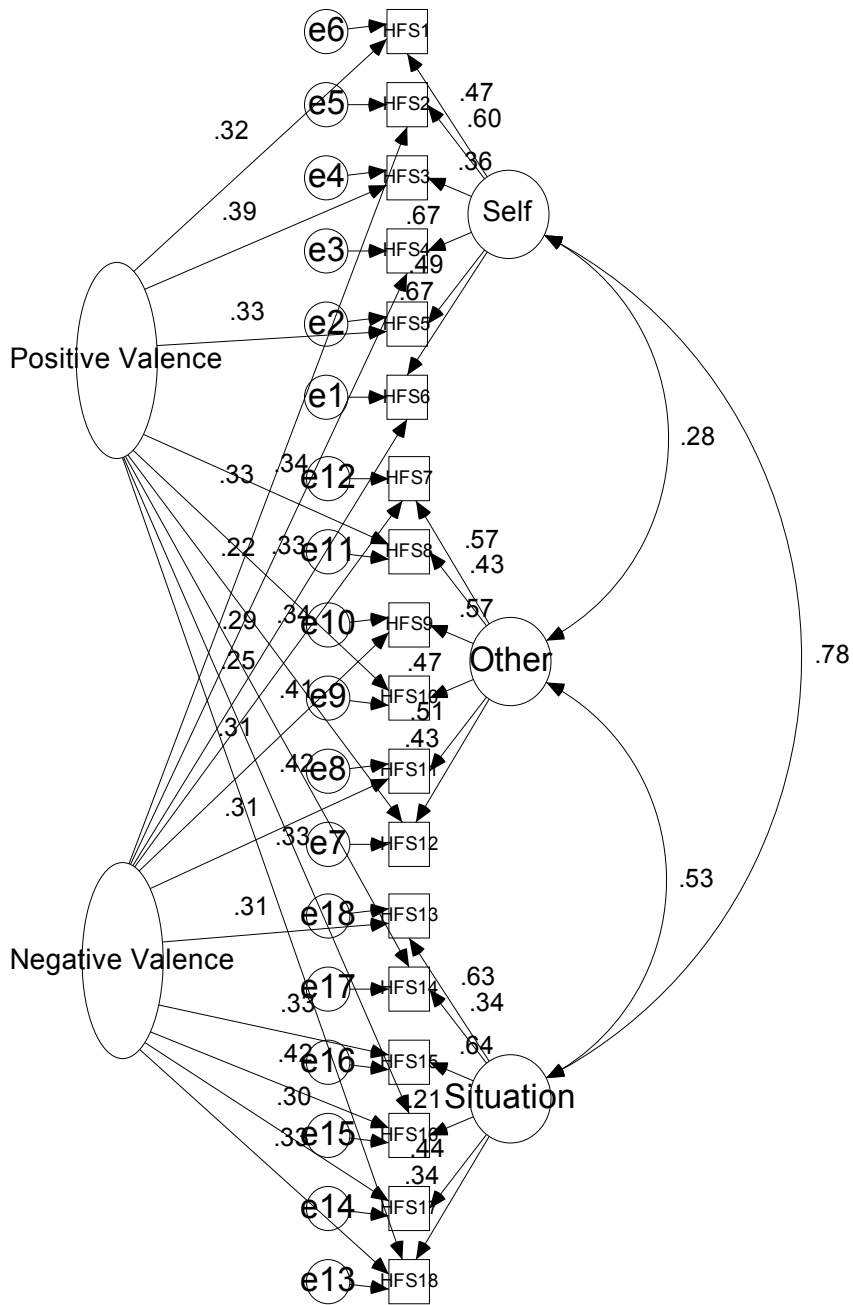


그림 1. HFS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도표(3요인모델)

표 3. 한국판 기질적 용서 척도(K-HFS)와 관련 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K-HFS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HFS 총점
<u>준거관련타당도</u>				
용서특질 척도(FTS)	.33***	.63***	.41***	.56***
한국판 자기용서척도(SSFS-K)	.65***	.28***	.47***	.59***
<u>변별타당도</u>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KFS-SF)	.25***	.47***	.35***	.44***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K-BIDR)	.12*	.16**	.15**	.18**
<u>수렴타당도</u>				
인지적 유연성(CFI)	.41***	.16**	.42**	.41***
특성분노척도(STAXI-K)	-.28***	-.39***	-.36***	-.43***
한국판(CES-D)	-.41***	-.22***	-.40***	-.43***

* $p < .05$, ** $p < .01$, *** $p < .001$.

와 .65, 타인용서와는 .28, 상황용서와는 .47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상관값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K-HFS의 자기용서가 타인 및 상황용서보다 상관값이 높아 준거관련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기질적인 용서가 아닌 상대적인 용서를 측정하는 한국인 용서척도 단축형의 경우, K-HFS 총점과 .44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값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기질적 용서와 상대적 용서는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한다고 고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경우, K-HFS 총점과 .18의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비록 상관값은 유의하나 절대적인 상관값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K-HFS를 통하여 측정된 기질적 용서의 구성개념이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의 경우, K-HFS 총점과 .41로 가설과 동일하게 유의한 정적인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분노의 경우, K-HFS 총점과 -.43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CES-D의 경우, K-HFS 총점과 -.43의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Thompson 등(2005)의 연구에서 보고된 기질적 용서 척도(Heartland Forgiveness Scale)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형 기질적 용서 척도(K-HFS)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26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원저자가 제안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성이 입증된 여러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K-HFS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K-HFS 척도의 하위 요인 별 상관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원저자인 Thompson 등

(200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hompson 등(2005)의 연구에서 기질적 용서 척도의 하위 변인을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역시 위의 3요인 모델이 적합하였으며, 요인별 상관 값 역시 원저자의 결과와 거의 동일했다. 이는 HFS척도가 용서의 보편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K-HFS 척도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향후 용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용서에 관한 초기 연구는 대인관계 갈등 시 타인용서에 초점을 맞추거나, 자기용서 단일한 측면을 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용서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조수아 외, 2011). 이러한 흐름에 적합하게 K-HFS는 다면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용서와 자기용서를 넘어 상황용서에 대한 측면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질적인 용서 수준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기질적 용서 수준 뿐만 아니라 각 차원에 따른 차이도 측정할 수 있어 K-HFS는 보다 기질적 용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K-HFS 척도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다른 여러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준거관련 타당도와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첫째, 용서특질척도(타인용서), 한국판 자기용서척도를 통해 준거관련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용서특질 척도는 K-HFS 척도의 하위 요인인 타인용서와, 한국판 자기용서척도는 K-HFS 척도의 자기용서

와 .60이상의 상관을 보인 반면 K-HFS 척도의 나머지 요인과는 .50이하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K-HFS 척도의 하위 요인은 각각의 구성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상태용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K-HFS 척도의 총점과의 변별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두 척도 모두 .50이하의 상관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K-HFS 척도가 측정하는 기질적 용서의 구성개념은 이론과 동일하게 상태적 용서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구성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K-HFS 척도가 이들 개념과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으로 기질적 용서와의 관련성이 보고된 인지적 유연성, 특성분노, 우울감 척도와의 수렴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K-HFS 척도 총점은 인지적 유연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 특성분노와 우울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했다(Thompson et al., 2005).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용서를 개인의 성격적 강점이자 덕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황 특정한 용서보다는 기질적 용서가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가 여럿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용서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용서가 심리적 안녕감을 얻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Heinze & Snyder, 2001; Mauger et al., 1992) 기질적 용서는 대인관계상에 있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Thompson et al., 2005). 또한 용서

는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경험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므로 용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수준이 낮고(김완일, 2008; 김지영, 권석만, 2009) 인지적 유연성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Thompson et al., 2005).

본 연구에서 인지적 유연성에 있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타인용서보다는 자기용서, 상황용서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인지적 유연성의 관련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상태용서보다 기질적 용서와 더 밀접한 관련을 나타낸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점차 용서연구의 흐름이 피해자의 부적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용서를 촉진하는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로 바뀌는 시점에서 가해자, 즉 타인용서보다 자기용서, 상황용서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개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단계에서 K-HFS척도가 적절히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의 대상자가 다양한 집단이 아닌 대학생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원저자가 제안한 구조와 동일하고 타당도 분석 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본 연구가 표집의 편향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연구에서 연령, 지역, 직업 등 다양한 집단에게 본 척도를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구조의 차이나 자기, 타인, 상황용서를 적절히 평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입증된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완일 (2008). 자기복잡성과 인지적 유연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715-734.
- 김지영, 권석만 (2009). 용서특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239-261.
- 박종효 (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1), 265-282.
- 박종효 (2012). 용서,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 탐색. *한국교육연구*, 26(4), 927-949.
- 배소현 (2010). 한국판 자기용서 상태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영희 (2008). 한국인 용서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45-1062.
- 오영희 (2010). 한국인 용서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17.
- 오영희 (2011).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99-813.
- 이연수, 송민경, 김청송 (2011). 청소년의 용서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173-195.
- 진경구, 한덕용, 이장호 (1998).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18-32.
- 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정명선 (2013). 한국인 특성용서척도(TFS-K)의 타당화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3), 81-103.
- 조수아, 권석만, 임영진 (2011). 용서신념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1-19.
- 최보라 (2007).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심양 (2011).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 인지적 유연성의 역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erry, J. W., Worthington, E. L. Jr., O'Connor, L. E., Parrott, L., & Wade, N. G. (2005). Forgiveness, vengeful rumination, and affective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73(1), 183-226.
- Dennis, J. P., & Vandar Wal, J. S. (2010). The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Instrument development estimat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 241-253.
- Enright, R. D.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2), 107-126.
- Enright, R. D. (2001). *Forgiveness is a choice: A step-by-step process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2004).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Redwood City, CA: Mind Garden.
- Hall, J. H., & Fincham, F. D. (2005). Self-forgiveness: The stepchild of forgiveness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 621-637.
- Hall, J. H., & Fincham, F. D. (2008). The temporal course of self-forgiven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2), 174-202.
- Hargrave, T. D., & Sells, J. N. (1997). The development of a forgiveness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3(1), 41-63.
- Hebl, J. H., & Enright, R. D. (1993). Forgiveness as a psychotherapeutic goal with elderly females. *Psychotherapy*, 30, 658-667.
- Heinze, L., & Snyder, C. R. (2001, August). *Forgiveness components as mediators of hostility and PTSD in child abuse*. [Paper] San Francisco: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uger, P. A., Saxon, A., Hamill, C., & Pannell, M. (1996). *The relationship of forgiveness to interpersonal behavior*. [Paper] Norfolk, VA: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u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Wade-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F., & Crane, R. J. (1983). The State-Trait Anger Scale.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ubkoviak, M. J., Enright, R. D., Wu, D., Gassin, E. A., Freedman, S., Olson, L. M., & Sarinopoulos, I.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 641-655.
- Tangney, J., Fee, R., Reinsmith, C., Boone, A. L., & Lee, N. (1999, August).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ropensity to forgive*. [Paper]. Bos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L., & Snyder, C. R. (2003). Measuring forgiveness.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pp. 301-31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ssociation.

- Thompson, L.,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asmussen, H. N., Billings, L. S., ... Roberts, D. E. (2005).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3*, 313-359.
- Wohl, M. J. A., DeShea, L., & Wahkinney, R. L. (2008). Looking within: Measuring state self-forg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0*, 1-10. doi:10.1037/0008-400x.40.1.1.1

원고접수일: 2016년 7월 28일

논문심사일: 2016년 8월 15일

게재결정일: 2016년 8월 26일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Heartland Forgiveness Scale(K-HFS)

Hyun-Gi Hong¹² Jung-Eun Lee¹ Jin-Kyung Kim²
Kyu-Heon Kang² Soo-Mi Lee² Myoung-Ho Hyun²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National Forensic Service¹ Chung-Ang University²

The curr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Heartland Forgiveness Scale, originally developed by Thompson et al.(2005). The participants included 326 college students. The inter-item reliability was high(Cronbach α =.80). The correlation analyses between K-HFS and Forgiveness Trait Scale, State Self-Forgiveness Scale-Korea, Social Desirability Scale, Korean Forgiveness Scale, Trait Anger Scal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supported criterion-related validity. Thu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HFS to measure trait forgiveness was validated. Additionally,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provided.

Keywords: Forgiveness, Trait Forgiveness, Heartland Forgiveness Scale(HFS)

부록 1.

한국판 기질적 용서척도 문항

		문항
자기용서	1	무언가를 망쳤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을 수 있다.
	2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나 자신을 원망한다.
	3	내가 저지른 잘못에서 교훈을 얻음으로써 잘못을 극복할 수 있다.
	4	일을 망치면 나 자신을 용납하기가 매우 어렵다.
	5	시간이 지나면, 실수를 했던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6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부정적인 일들로 인해 스스로를 계속 비판한다.
타인용서	7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 사람을 벌주려 한다.
	8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실수했던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9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계속 매정하게 대한다.
	10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라도, 결국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
	11	만약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들을 계속 나쁘게 생각할 것이다.
	12	누군가에게 실망을 했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상황용서	13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
	14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나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15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실망하게 될 때,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16	살아가면서 나쁜 상황이 생기더라도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17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18	통제할 수 없는 나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결국에는 흘려버릴 것이다.